

求償貿易 그 實態와 展望

~ 適切한 對應戰略 摸索 必要 ~

金 鎮 淑

〈大韓貿易振興公社 事業開發部長〉

序

최근의 世界經濟는 일시적으로는 활발한 성장세를 시현한 적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長期 不況局面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戰後 世界경제의 基調가 되어 왔던 自由貿易主義는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各國은 自國産業의 保護라는 名分 아래 점차 保護主義의 장막을 넓게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世界경제 및 무역환경하에서 各國은 自國經濟의 活路의 일단을 求償貿易에서 찾는 傾向이 漸增하여 왔으며 이제 求償貿易은 世界交易上 무시할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求償貿易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으며 靜態의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世界경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動態의인 觀點에서 能動的·積極的으로 對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1. 求償貿易의 概念과 形態

求償貿易(Countertrade)은 輸出과 輸入이 연결된 貿易去來를 총칭하는 것으로 對應貿易, 相對貿易, 條件附貿易, 開發貿易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形態에 대해서는 EC와 美國에서 각각 相異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GATT

의 解說에 따를 경우 가장 初보적인 物物交換 形態인 바터(Barter), 販賣者가 판매계약금액의 일정비율만큼 購買者의 제품을 구매하는 對應購買(Counter-Purchase), 同一契約에 있어 일부는 화폐로 지불하고 일부는 상품으로 지불할 것을 규정하는 補償貿易(Compensation Trade) 그리고 産業設備을 交易對象으로 하는 産業協力(Industrial Cooperation) 등으로 구분되는 바 産業協力は 또한 販賣者가 供給한 裝備, 技術, 플랜트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으로 對應購買가 이루어지는 製品還買(Buy-back deal)와 수출국의 資本 參與가 병행되는 合作投資(Joint Venture)로 나누어진다.

최근에는 對應購買의 變形方式인 相殺方式(Offset Programme)에 의한 求償貿易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防衛産業製品 또는 航空機産業 분야의 국제거래에서 활용되는 形態로서 이러한 裝備의 구입과 연계하여 상대방에게 關聯部品이나 關聯材의 對應購買를 요구하거나 關聯産業分野의 技術移轉을 촉구하기 위한 去來方式이다.

이 밖에도 輸出入 당사국 사이에 제3의 Switcher(Trading House)를 개입시켜 對應輸入의무를 相計하는 形態의 交換去來인 Switch-trading 등 去來當事者들의 편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變形된 形態의 求償貿易이 증가해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II. 求償貿易의 經濟的 機能 및 推進上 問題點

1. 經濟的 機能

求償貿易은 국가의 政策 및 去來當事者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의 상이한 동기에 의해 추진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잘만 운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經濟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貿易收支의 改善策이 될 수 있다. 즉 求償貿易은 輸入에 대한 外貨流出을 막고 輸出을 증대시킴으로써 貿易收支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바 특히 入超現象을 보이고 있는 國家들에 대하여 求償貿易을 추진함으로써 貿易不均衡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市場開拓을 통한 輸出市場의 多변화를 기할 수 있다. 즉 中南美, 아프리카, 東南亞 및 共產圈으로부터 증대되고 있는 求償貿易 提議에 효과적으로 對應함으로써 80 년대의 세계 경기 부진과 先進國의 輸入制限政策에 따른 輸出增大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한편 自國의 主宗商品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한 新規商品도 求償貿易 조건으로 輸出이 가능하므로 輸出商品의 多邊化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先進技術의 移轉手段이 된다. 이는 製品還買(Buy-back deal)나 合作投資(Joint Venture) 형태의 求償貿易에서 重視되고 있는 기능인 바 求償貿易을 통해 後進國들은 所有權을 유지한 채 先進技術을 提供받을 수 있으며 시일이 흐르면 工場 稼動방법, 商品의 마케팅 방법 등도 自體적으로 배워 自國의 公업화와 市場開拓 기능을 함께 획득할 수 있음은 물론 그에 따른 雇傭增大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다.

넷째, 外換不足·開途國에 대한 輸出增大를 기할 수 있다. 즉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1次產品의 가격暴落으로 1次產品의 外貨獲得에 의존했던 國家들이 대부분 外換不足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資源保有國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開途國이 外債償還能力의 부족으로 곤경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開途國들은 어려운 外換事

情에도 불구하고 既計劃된 경제개발계획은 중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資本財 및 設備의 確保를 위해서는 부득이 求償貿易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國家들로부터의 求償貿易 提議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그만큼의 수출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求償貿易 推進上의 問題點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求償貿易은 잘만 활용한다면 여러가지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與件上 이의 현실적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障礙要因이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1) 部門政策間의 摩擦

求償貿易은 궁극적으로 輸出入행위라는 점에서 商工政策에 속하는 것이지만 去來自體가 雙方去來이며 일반적으로 特殊品目이 취급된다는 점에서 商工政策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通商外交政策, 農水產政策, 에너지 政策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部門政策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政府部處間의 意見對立으로 求償貿易의 현실적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原油를 求償貿易方式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商工政策의 입장에서는 既存의 輸入品目이므로 이를 활용, 우리 상품의 對應輸出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겠지만 에너지 政策面에서 볼 때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우선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求償貿易 提議에 의해 政策基調를 변경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2) 國內需要의 制限

일반적으로 求償貿易 형태의 交易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상품목은 대부분이 提議國家의 傳統商品으로 農產品을 중심으로 한 1次產品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輸入農產品과 國內生産可能 農產品과는 對峙性이 강하여 이들 품

목의 輸入時에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예를 들면 바나나의 경우 國內需要는 있을지 모르나 國內 반입시 국내 과일과의 對峙性으로 인해 輸入開放에는 한계가 있으며 커피, 코코아 등은 國內市場이 매우 制限的이라는 점에서 大量的 求償貿易 提議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 長期供給契約으로 既存物量外 追加導入 또는 供給先 轉換 困難

기존의 輸入品目中에는 국내에서 市場性은 충분할 경우에도 주요 輸入業體가 외국의 供給業體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고 있는 관계로 求償貿易 提議에 즉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품목의 예로는 鐵鑛石과 原油 등을 들 수 있는데 물론 이들의 장기공급계약이다소 신축성이 있지만 國內必須資源의 안정적인 供給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일시적인 求償貿易으로 장기공급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도, 혹은 변경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4) 既存輸出市場 위축 可能性

求償貿易의 거래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으나 대규모로 행해질 경우에는 정상적인 交易方式에 의한 既存輸出市場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原油 등 原資材의 수입과 연계하여 機械類나 신발류 등 2次商品을 求償貿易으로 수출할 경우 기존의 輸出業體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Ⅲ. 求償貿易의 推移 및 展望

1. 世界交易上の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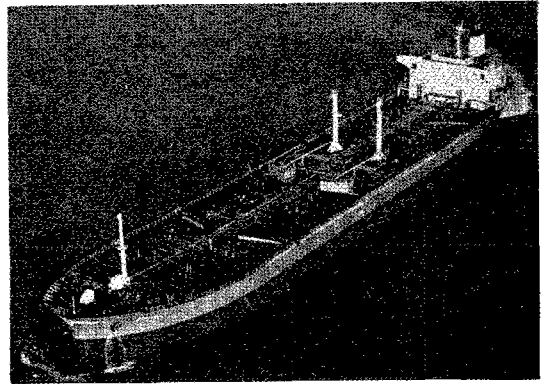
國際間的 交易에 있어서 求償貿易이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去來形態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볼 때 求償貿易의 원시적인 형태는 고대의 物物交換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근대적인 형태의 求償貿易이 성행하게 된 것은 제 2차대전 이후로 보아야 한다.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美國은 “自由·無差別·多角主義”의 理念下에 IMF, IB-

RD, GATT 등을 主軸으로 달러 支配下의 世界經濟秩序를 구축하여 自由貿易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體制인 소련과 東歐圈은 資本主義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經濟 블록을 형성하였는 바 이들 東歐圈 經濟는 計劃經濟下에 運營·統制되기 때문에 COMECON 域內貿易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달러 體制인 西方側과의 交易을 추진함에는 대금 결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交易對象國間에 相互清算協定이나 支拂計定을 설치, 物物교환 형태의 求償貿易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한편 2차대전 후 獨立을 쟁취한 開途國은 국가건설에 소요되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西方



側과 雙務主義(Bilateralism)라는 大原則下에 求償貿易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으며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일어난 西歐諸國 및 日本의 經濟發展과 이들 國家들의 通貨流動性이 회복되어 IMF 8條國으로서 共同體制로 전환됨에 따라 求償貿易은 점차 사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求償貿易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東西交易에만 이용되는 단순한 物物交換 및 清算去來의 형태로 인식되어 왔으나 1970년에 들어서는 東西間的 交易뿐만 아니라 先進國과 開途國, 開途國 相互間 혹은 先進國 相互間에도 求償貿易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交易형태 역시 단순한 物物交換 형태에서 벗어나 각종 Technique가 加味된 좀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對象品目도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求償貿易이 새롭게 전개된 것은 몇가

지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로 전후 開發國은 의욕적인 經濟開發計劃에도 불구하고 國民經濟의 自立이 성취되지 않았고 특히 後發開發國들은 先進國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가 自國의 經濟發展에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깨닫고 “援助보다 貿易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자연히 수입과 연계시켜 自國産品을 수출하는 連繫貿易이 성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後發國의 原資材 및 1次産品의 수출가격과 先進工業國의 公業産品과의 가격차이는 比較生産費의 관점에서 현격한 乖離가 있었고 또한 代替工業原料의 등장은 후진국의 資源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求償貿易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東歐圈이 先進工業國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累積債務 축소 및 西方市場 침투를 위해서 과거의 國家間 清算協定下的 交易으로부터 상대국 民間商社를 대상으로 한 구상무역으로 전환, 景氣沈滯下的 西方企業과 去來上의 欲求를 상호 충족시킴으로써 求償貿易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求償貿易은 여러모로 발전의 길을 걸어 왔으나 地下交易(Underground Transaction)이라는 단어로 지칭되고 있듯이 隱密性和 非公開性을 그 특징으로 하는 바 따라서 아직까지 확실한 統計資料가 없는 실정이나 최근 발표된 GATT 報告書에 의하면 求償貿易은 세계 交易量의 8%, 금액으로는 年 1,600억 내지 2,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30% 정도나 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財貨 및 用役의 정상적인 흐름을 歪曲함으로써 世界貿易秩序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求償貿易이 전통적인 自由貿易主義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現 貿易秩序內에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국간의 利害相衝으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保護貿易主義가 漸高하고 있는 등 현재와 같은 世界貿易環境이 改善되지 않는 한 求償貿易은 지속적인 輸出増大를 위한 차선책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現實論이 심지어 美國, 유럽共同體 등 先進國들에서조차도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실

정이며 開發國 가운데서 58개국 이상이 求償貿易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에서 15개국은 求償貿易을 法規로 규정해 놓고 있다.

2. 不確實時代의 유행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求償貿易은 世界各國이 직면한 경제문제 특히 交易의 均衡을 유지하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世界景氣가 好況局面에 있을 때보다 沈滯期에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 바 1970년대에 이르러 求償貿易은 종래의 非公式的인 次元에서 벗어나 점차 國際間的 競爭手段으로 公式化·制度化되어 國家間的 經濟協力の 범주 안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國家間的 밀월회담에 의해 공식적인 去來形態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求償貿易은 産業協力이라는 명칭으로 國際舞臺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求償貿易은 先進工業國의 技術移轉 代價를 그로부터 製造된 製品으로 지불하는 형태, 주요 Plant의 受注와 連繫하여 同 플랜트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對應購買하는 형태, 兩國間的 계약에 의해 共同生産體制를 갖추는 형태, 原副資材 供給을 위한 하청공장의 共同設立 등 합작투자 형태를 加味한 求償貿易이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求償貿易이 단순한 상품의 交換 형태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General Electric Trading Corporation, General Motors Trading Corp. 등 세계의 주요 대기업들은 求償貿易을 전담하는 部署나 會社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一部國家들은 求償貿易을 立法化하고 있거나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政府發注工事を 自國商品 수출과 연계시키는 求償貿易政策을 公式발표한 바 있으며 濠洲는 政府나 公共機關이 自國內 調達이 불가능한 물자를 수입할 때 輸入總額의 30%의 對應購買義務를 부과하는 조치를 立法化한 예도 있다.

이처럼 求償貿易은 불확실한 國際貿易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交易對象國間的 貿易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당위성에 비추어 不確實時代의 求償貿易은 國際交易에 있어 유효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展 望

지금까지 求償貿易에 의한 國際去來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向後에도 당분간은 求償貿易에 의한 世界交易量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바 오는 88년경에는 世界貿易의 40%가 求償貿易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이유로서 우선 求償貿易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先進國들은 外換不足國들과 求償貿易方式에 의해서 交易을 계속함으로써 해당 經濟體制의 붕괴를 방지하고 世界貿易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開途國들은 강화되는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서 국제 마케팅面에서의 競爭手段의 하나로서 혹은 經濟開發 수단으로서의 求償貿易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外換事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國家들의 경제가 단기간내에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通常의으로 몇몇 國家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外換不足感을 所有하게 된다는 점과 세계 각국의 政府機關에서 최근 求

償貿易에 대한 活用方案을 검토중에 있고 특히 美國, 日本 등 先進國의 경우 민간분야에서 大企業을 중심으로 求償貿易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求償貿易의 확대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여하튼 求償貿易이 전세계적으로 擴散되게 된 것은 최근 몇년간의 國際貿易환경의 악화, 國際流動性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世界景氣가 好況局面에 있을 때보다 沈滯期에 더욱 성행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볼 때에 世界景氣 전망이 불투명하고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保護貿易의 기치 아래 각종 輸入規制를 강화하고 있는 現與件 아래 求償貿易에 대한 의존도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V. 우리나라의 求償貿易 現況 및 對應戰略

1. 우리나라의 求償貿易 現況

전세계적으로 求償貿易에 의한 交易이 擴大趨勢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政府 또는 一般商社 次元의 求償貿易 提議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提議 國家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심각한 外債難에 시달리고 있는 中南美 國家들 및 아시아, 아프리카 國家들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求償貿易 提議品目은 販路確保가 어려운 1次產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로부터 對應輸入을 희망하는 품목들은 주로 機械類, 섬유류 등 工產品이다.

84년도에 KOTRA의 組織網을 통해 接受된 求償貿易 인콰이어리는 총 21개 國家들로부터 45件에 달했는데 이 중 우리나라의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필리핀產 바나나, 우리의 타이어 튜브와 에콰도르의 참치, 우리나라 석도강판(Tin-plate)과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우리의 비료와 泰國의 타피오카(Tapioca) 등 수출입 각각 US\$ 3,954천 상당의 求償貿易이 이루어졌고 85年 上半期中에는 세계 16個國으로부터 총 23건(US\$ 971,200천 규모)의 求償貿易 提議를 接하여 이 중 에콰도르가 提議한 White



fish와 우리나라의 양말 편직기(5만1천 달러), 섬유기계 및 타이어(30만 달러) 간의 求償貿易 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이외에도 우리의 組立式住宅과 칠레의 銅, 木材, 펄프(1천 5백만 달러), 자동차와 필리핀 天然고무(2백 5십만 달러), 합판 플랜트와 버마의 原木(3백만 달러) 등 여러 件들이 KOTRA의 仲介下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에도 금년 初 호주로부터 自國의 鐵鑛石과 相互交換하자는 提議를 받은 적이 있는 바 본 件에 대해서는 鐵鑛石의 유일한 國內輸入業體인 포항제철이 長期供給契約를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인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적당한 對應輸入品目을 提示하는 國家들과 시멘트를 媒介로 한 求償貿易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상 살펴본 求償貿易提議 接受現況은 KOTRA 接受分에 한정된 것이며 私企業體가 提議받은 사례를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求償貿易去來 提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綜合商社들은 求償貿易 전담 팀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측에서도 貿易收支 개선을 위한 求償貿易 활동방안을 수립하는 등 公私部門 公히 求償貿易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2. 對應戰略

전세계적인 求償貿易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도 하루 빨리 對應戰略을 수립하여 國際貿易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 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逆調國들에 있어 貿易收支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타개책으로서 현재 求償貿易 이상의 政策手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의 活用方案의 조속한 수립이 요망된다 하겠다.

첫째, 國民經濟 전반에 求償貿易의 영향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政府次元에서 求償貿易 綜合對策을 마련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것이 요망된다.

구상무역의 추진시에 부딪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相關 部門들간의 利害關係 相衝問題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증대 및 貿易收支 개선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社會 各 部門들의 利害關係의 원만한 조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둘째, 民間部門 차원에서 對應輸入機能 강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KOTRA가 그간 接受한 求償貿易 인콰이어리를 분석해 보면 輸出商品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었으나 輸入商品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소화능력이 부족하여 번번히 그 추진이 중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바 國內에서 販路를 찾을 수 없는 상품을 제외받을 경우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재 3국에 再販賣하고 對應輸出에서 이 손실을 상쇄하고 超過利益을 도모할 수 있는 國際的인 마케팅 能力的 提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對應輸入義務를 대행하여 주는 求償貿易專門交易商(International Trading House)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單純輸入을 求償貿易과 連繫된 수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政策的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海外에서 대량으로 原資材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를 單純輸入方式으로만 수입할 것이 아니라 對應輸出과 연계해서 수입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수출증대 및 貿易赤字幅 축소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求償貿易의 현실적 추진에는 상담과정 및 去來節次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해당업체들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불이익을 상쇄하여 주어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구상무역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求償貿易에 의한 수입품에 대해 현행 수출용 原資材에 준하는 關稅還給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적절한 보상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상무역에 의한 수입도 수출과 직결된 對應輸入의 일환이므로 關稅還給 혜택 부여의 이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특히 基礎原資材의 경우 이를 求償貿易으로 수입한다면 2중의 수출효과를 擧揚할 수 있다고 하겠다. ♣